

報道資料



보험개발원

제공일자	2008년 3월 12일	
담당자	이상돈팀장	(031) 644-1607
홍보담당	이정환선임	368-4093
※ 총 2 매		

“시가소켓 차량화재 보도(2008/3/2)”에 대한 보완자료

□ 화재실험 배경

- 보험회사등이 우리원에 사고원인조사를 의뢰한 것 중 화재로 인한 보험금지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시가소켓에 이물질이 투입되어 발화된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실제로 이러한 경우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실험함

※ 우리원은 손해보험사의 사고원인조사의뢰, 법원의 사실조회의뢰 등으로 연간 약 30회 이상의 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중 약 15건이 차량화재 사고원인조사임

□ 실험조건에 대하여

- 정상적인 퓨즈인 경우에는 합선시 퓨즈가 단락되어 대부분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나 사고조사를 의뢰한 보험금 지급사례에서는 차량이 전소되고 소켓내부에 이물질만 발견된 사례가 있어 이를 참작하여 퓨즈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여 모의실험함
- 기 배포된 보도자료 원문에는 이러한 실험조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나, 당일 인터뷰현장에서 추가로 제공된 보충자료에는 이러한 실험조건이 언급되어 있었고, 관련설명도 하였음
- 다만, 중요한 실험조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자동차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발생케 한 점은 사과드림

<참고> 제공된 보충자료 '시가소켓 위험성 연구결과(요약)' 4쪽

물론 차량 전기회로에는 안전장치로 퓨즈를 사용하고 있으나 퓨즈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나 정격 퓨즈 용량을 초과한 것을 사용한 경우, 또는 운전자가 임의로 퓨즈박스 등에서 분지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등에는 전선의 과부하는 지속될 것이므로 피복발열 및 연소로 인한 차량화재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 정상적인 퓨즈의 경우에도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음

- 시가소켓 내에 동전 등 이물질이 유입되면 퓨즈가 불량이거나, 완벽하게 단락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 예를 들어 차량진동 등으로 유입물이 시가소켓내에서 불완전 접촉을 할 경우 퓨즈는 끊어지지 않고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기 때문에 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전기화재 전문가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과 최충석교수” 의견)
- 우리나라 차량의 대부분이 전자 유도형이 아닌 열감지형 퓨즈를 사용하고 있어 열전달 정도가 퓨즈를 녹일 정도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계속 전류가 흐를 수 있음

○ “인화성 물질에 의한 조작”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

- 금번 차량화재 재현실험은 경원대 소방방재공학과 교수, 이천소방서 및 하남소방서 관계자가 참관한 상태에서 실시한 실험으로,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이 주장하는 인화성물질에 의한 조작 등은 없었음

□ 우리원은 향후에도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연구자료만을 발표하여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